

지역난방공사
 광주에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영남)가 광주시(시장 박광태), 대성그룹(대표 김영훈)과 함께 광주 수완 및 하남 2택지 개발지구에 구역형 집단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

한남은 지난 1월 12일 광주광역시청 회의실에서 박광태 광주시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수완 및 하남 2택지개발지구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CES) 추진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한남, 광주시, 대성그룹은 광주 수완 및 하남 2택지 개발지구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을 3섹터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총 18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08년까지 115MW급 열병합발전기와 170Gcal/h 용량의 첨두부하보일러를 건설,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3만1000호와 업무·공공용빌딩 등에 전력 및 난방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한상의
 기업 70% 에너지절약 설비
 투자 계획

국내기업의 70% 이상이 에너지절약관련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중 47.3%가 '비용절감 효과' 때문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상장기업 중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약 40%의 에너지 절감과 연간 52%의 대기오염물질 감소, 하절기 전력 피크부하 감소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남은 이에앞서 11일 산자부로부터 파주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를 취득했다.

한남은 당초 지난 2003년 12월 산자부로부터 시간당 350MW의 전기, 252Gcal의 열을 생산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시설(CHP)과 첨두부하보일러(103Gcal/h) 4기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으로 파주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파주 운정 신도시 통합개발 및 택지개발 계획변경으로 확대된 열부하를 충족하기 위해 시간당 515MW의 전기, 396Gcal의 열을 생산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시설(CHP)과 첨두부하보일러(103Gcal/h) 3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허가를 취득했다.

파주 열병합발전시설은 2009년 하반기에 준공예정인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될 예정이며, 생산된 열은 파주 교하, 운정신도시 및 탄현주변의 5만 6000세대의 공동주택과 업무·상업용 건물에 공급할 예정이다.

제조업체, 발전사 등 461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요기업의 2006년도 에너지절약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10개중 7개 기업이 에너지절약 투자 계획을 갖고 있으며, 설비투자비의 6.7%를 에너지절약에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절약 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72.1%였으며, 투자규모에 있어서는 대기업이 업

체당 28억9000만원, 중소기업이 업체당 2억4000만원 가량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액에 응답한 209개 업체의 총 에너지절약 투자비는 510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비에서 에너지절약 투자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7%였으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6.7%, 중소기업이 8.2%로 오히려 투자 비중이 더 높았다. 대한상의는 통상 제조업체에서 설비투자비의 1% 내외를 에너지절약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에 비춰볼 때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이 에너지절약에 투자하는 이유로는 47.3%가 '비용절감 효과'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 외에는 '고유가 대응'(32.6%), '기후변화협약 대응'(8.1%), '정부 정책·규제에 대한 대비 차원'(5.9%), '일상적 투자'(3.1%), '정부 지원에 따라 투자'(1.9%)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됐고, 올해에도 두바이유 연평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대외적 여건으로 최근 기업의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또한 기업들은 에너지절약 투자 걸림돌을 묻는 질문에 대해 '투자성과(회수기간)의 불확실성'(33.7%), '자금 등 투자여력 부족'(28.5%), '경기부진'(20.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투자성과의 불확실성'(35.8%)을 가장 많이 지적한 반면, 중소기업은 '투자여력 부족'(35.6%)을 가장 높게 꼽았다.

한편 응답기업의 56.4%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0.1%만이 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국
 수소불화탄소 줄이기 운동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가전제품제조업체연합(AHAM)회가 냉장고의 냉매 및 절연재에 포함 된 수소불화탄소

(hydrofluorocarbons : HFCs)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매년 미국에서 출시되는 1,200만대의 냉장고 및 냉동고 제조시 프레온 배출이 상당히 줄어들고 세계적으로는 6,000만대 가량이 이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소불화탄소는 냉장고와 냉동고에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된다. 하나는 냉매이며 다른 하나는 냉장고 본체에 사용되는 단열 발포제다. 수소불화탄소는 프레온 가스(chlorofluorocarbons: CFCs)와 다른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을 막기 위한 대체재로 널리 사용돼 왔다.

수소불화탄소가 성층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지만 대기권에 배출되면 이 가스는 강력한 온실가스가 되고 이산화탄소보다 그 영향력이 1,300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은 제품 전 주기 동안 가정용 냉장고의 배출감소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제안한다. 전 주기란 배달, 저장, 이송을 비롯해서 공장 파이프, 혼합작업, 냉매작업, 발포제 공기주입작업 등을 포함한다.

산업자원부 올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4095억원

올해 신·재생에너지에 4095억원이 지원된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244억원, 보급사업 1375억원, 보급유자 1213억원, 발전차액 263억원을 각각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26.3%가 늘어난 것이다.

기술개발부문은 상업용 연료전지를 비롯해 태양전지소재 양산기술개발, 해상 풍력 개발 등 미래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대형과제 중심으로 2005년 대비 32.2%가 증액됐다.

또 보급사업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월로펌프 세계 최초 저소음 상향식 가압펌프 개발



월로펌프(대표 우택기)가 세계 최초로 저소음 상향식 가압펌프 PB-601SMA를 개발, 출시했다고 밝혔다. PB-601SMA는 국내외 업계에서 최

초로 특히 출원한 유량감지형 역류방지 밸브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수압이 낮은 아파트나 고층빌라, 물탱크가 없는 다세대주택에서도 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이 제품은 펌프의 운전과 정지 반복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소음방지 뿐만아니라 전력비 절감 등 고효율을 구현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월로펌프는 국내의 산업 및 생활용 펌프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으로 지난해 12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490억원이, 보급보조사업 280억원, 지역에너지사업 475억원,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130억원이 지원된다.

산자부는 특히 올해부터는 최근 급증하는 전력분야 신·재생에너지 소요예산의 충당을 위해 전력분야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에트회계 지원예산은 1765억원으로 지난해 2886억원보다 축소된 반면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예산은 2330억원으로 지난해 355억원보다 대폭 증가됐다.

한국수자원공사 시화호조력발전단지 CDM사업 승인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곽결호)의 시화호조력발전이 지난 1월 25일 정부로부터 국내에서 다섯 번째로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승인 받았다.

시화호조력발전은 254MW규모로 연간 55만2700MWh의 발전을 할 것으로 예측되며 연간 31만593tCO₂ 정도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시화호조력발전의 연간 발

전량과 온실가스 감축량은 각각 국내 총발전량의 0.15%, 총 배출량의 0.05%에 해당된다.

우리정부의 승인에 따라 시화호조력발전사업이 유엔기후변화협약 산하 CDM 집행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다면 올 상반기 중에는 등록이 완료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지난해 2월 개최된 CDM집행위원회 18차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CDM사업 등록단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 비부담국(Non-Annex I국가)의 CDM사업 승인 서면 제출해도 등록이 가능하다”며 “시화호조력발전사업은 Non-Annex I국가인 우리나라 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사례이며 이 사업의 승인을 계기로 비슷한 형태의 CDM사업이 국내에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산자부는 시화호조력발전을 포함해 지금까지 승인된 5건의 CDM사업을 통해 지난 2003년 기준 국내 연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1.90%에 해당하는 연간 11억700만tCO₂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사업자 선정**



(주)포스코 건설이 경기도 고양시의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업체로 선정됐다.

포스코 건설은 GS건설(주), (주)대우건설 등과 입찰에 참여 기본설계적격심, 가격심사, PQ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로 결정됐다.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은 2010년 2월까지 1207억원의 공사비로(국·도비 417억원 포함) 300톤/일 소각용량을

친환경 신기술인 열분해/가스화·용융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재활용선별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이 함께 추진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로 선정된 (주)포스코건설의 기술은 전 처리가 필요 없고 열분해로와 용융로가 결합된 단순한 구조로 고온 용융(1700℃ 이상)방식이며 보조연료로 코크스를 사용해 경제성이 우수하고 양질의 슬래그 생산이 가능한 시설이다.

특히 (주)포스코건설은 경남 양산에 신기술에 의한 용융로를 국내 최초로 건설 중에 있으며, 약 30년간 축적된 포스코 제철소 용융로 운전기술을 보유함으로써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의 안정된 운영기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
 제1차관에 김종갑 특허청장 내경**

산업자원부 제1차관에 김종갑 특허청장이 내정됐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지난 1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이 단행한 8개 정부 부처 차관과 7개 차관급 외청장 등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산자부 제1차관으로 내정된 김종갑 씨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대구상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와 인디애나대에서 각각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17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76년부터 공무원으로 시작했으며 상공자원부 통상협력담당관, 통상정책과장, 산자부 산업정책국장, 차관보 등을 거쳐 지난 2004년 8월부터 특허청장을 역임한 바 있다.

**열병합발전협회
 정기총회 및 이사회 개최**

한국열병합발전협회는 오는 16일 2006년도 정기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 및 총회 안건은 지난해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 승인과 올해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 등이다.

**어관공
 M&V보완·관리업무
 ESCO영역 추가**

에너지관리공단은 올해 ESCO자금지원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조명기기, 냉동기, 빙축열시스템 등 고효율기기 6개 품목의 성과 측정 및 평가가이드(M&V)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관리업무를 ESCO사업 영역으로 새로 추가했다. 이와함께 공단은 책임경영시스템을 비

롯해 ESCO협회 중심으로 윤리경영협약을 체결하여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현재 진행 중인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에 대한 M&V도 고효율 품목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청주도시가스
 열병합발전 설명회 열어**

청주도시가스(주)는 최근 에너지관리공단 충북지사와 함께 본사 SUPEX홀에서 관내 중앙난방방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재건축조합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의 원리와 구조 및 시스템 설치에 따른 관리비 절감, 난방효율 개선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주최측의 한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소형열병합발전제에 대한 이해와 함께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는 건설회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도 이같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욕주
 에너지 절약 납세자에 세금감면
 혜택**

뉴욕주가 앞으로 에너지절약에 앞장서는 납세자들에게는 각종 세금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파타키 주지사는 16일 올 회계년도 주정부 예산안 세부계획 내용을 발표하면서,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대체연료 이용 차량 소유자들에게 세금감면혜택을 주고, 대체연료를 취급하는 주유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도를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모두 뉴욕의 공기를 맑게 정화하는 한편 '테러를 조장하는 외국산 오일'에 대한 뉴욕주민들의 의존도를 점점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파타키 주지사는 설명했다.

17일 의회로 전달되기 하루 전 미리 발표된 계획안에는 오염도가 낮은 연료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러한 인센티브들이 얼마나 큰 결실을 맺게 될 것인지에 미지수이지만 일단은 환영할만한 내용이라는 반응이다. 인센티브 가운데 주요한 내용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할 경우 개인당 2천달러의 소득세 크레딧 ▲하이브리드 차량을 소유하거나 꺾린당 45마일 이상 마일리지를 내는 에너지 절약형 차량 소유 운전자들이 E-Z Pass를 이용할 경우 10%의 디스카운트 혜택 ▲65세 이상이며 연소득이 7만5천이하인 주민들에게는 가정용 난방비에 대해 최고 50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 ▲저소득층 난방비 보조에 5백만달러 지출 ▲에너지 소모가 많은 구식 난방시스템을 교체할 경우 5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줄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삼성엔지니어링 매출액은 감소, 순이익은 증가

삼성엔지니어링은 작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조212억원과 478억원으로 2004년에 비해 37.8%씩 감소했다고 지난 1월 16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수주잔액 감소와 이로 인한 매출 감소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무구조 개선 등으로 순이익은 전년보다 55.6% 증가한 592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하니웰 A&S International의 '2005 올해의 우수제품'에 선정

한국하니웰(주)(대표 박성호) 홈시스템 사업부의 'HS-5000'이 시큐리티 분야의 권위있는 잡지인 A&S 인터내셔널(A&S International)이 선정하는 '2005 올해의 우수제품'으로 선정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아주대 인력양성 MOU 체결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방기열)과 아주대학교(총장 박재운)는 지난 1일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우리나라 에너지·자원정책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해 학술 및 연구 활동에 있어서 상호 긴밀히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해 상호 협력에 관한 협정서(MOU) 조인식을 가졌다.

조인식에 참석한 아주대학교 박재운 총장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MOU를 체결한 것을 계기로 양 기관이 에너지

분야 공동연구에 더욱더 밀착된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에너지경제연구원 방기열 원장은 국내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에너지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선정된 아주대학교와 MOU를 체결한 것을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 양 기관이 학문과 정보를 서로 교류 할 뿐만 아니라 시설의 공동 활용이나 인력 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하자”고 제의했다.

이번 협정서에 따르면 에경연 직원이 대학교 겸임교원으로 출강할 수 있으며 대학교의 학생이 에경연의 연구생으로 있는 경우 학점을 인정키로 했다. 또한 에경연 직원이 아주대학교 학위 과정에 진학하는 경우에 연구원은 1인당 매년 1,000만원의 장학금을 아주대학교에 지원하며 양 기관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에너지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코오롱정보통신 “에너지 서비스사업 진출”

코오롱정보통신은 지난 2일 미국 애설론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에너지 서비스’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우선 과천 코오롱그룹 사옥에 론웍스 기술을 적용, 에너지 사용을 30% 이상 줄인 후 계열사들의 각 시설물에 이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HS-5000은 출입제어 및 가전기기의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조명, 커튼, 에어컨을 포함한 가전기기, 디지털 도어락 등은 인터넷과 WAP, 전화로 유선 및 무선 제어가 가능하며 한 제품에서 홈오토메이션, 시큐리티 알람, 비디오 도어폰의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 하이테크놀로지 제품이다.

HS-5000은 업계 최초로 Home Gateway의 개념을 도입하여 출시한 제품으로 작년 한해 홈네트워크 제품 국내 판매 1위라는 성과를 누렸다.

이전안내 / (주)에스코프로(대표 이상수)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12-8 대륭포스트타워 1차 1704호
TEL. (02)2082-2470~2